

휴거와 생명의 날

1. 더 새롭게, 더 차원 높게 하는 역사는 누구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방심하면 해마다 안 되는 역사로 해놓은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맞게 되었다.
2. 세상의 결혼식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하늘의 결혼식은 계속 차원을 높여서 하는 것이다. 고로 처음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했던 사람도 항상 새로운 세계이며, 이것이 사랑의 역사다.
3. 사랑의 역사는 어떤 행사와 같이 끝나버리지 않고 연속해서 끝이 없는 세계로 더 뜨겁게, 더 열나게, 더 엄청나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계속 되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다.
4. 세상 것은 하면 할수록 지쳐버리는데, 계속 해도 지치지도 않는 세계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세계다. 하면 할수록 더 힘나고, 더 이상적이고, 더 웅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5. 오늘은 휴거 되는 방법을 말씀하는 날이 아니다. 선생이 결혼 예식 주례자가 되어 주례를 서고 있다.
6.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재미 보는 것이 없다.
7.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이 항상 문제다.

8. 올해는 휴거를 위해 하나님께서 1월부터 충분히 모든 것을 하도록 해주시며 준비시켜왔다. 고로 많이 준비한 해 중에 하나다.
9.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룬 역사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6천 년 만에 정녕코 이룬 역사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대단하신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와 같이 할 수 없었다. 인생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기뻐서 하신 일이다.
10. 섭리의 신부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긴긴 세월을 살아왔다. 엄청난 어려움, 핍박, 억울함, 누명,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기고 행해서 이룬 것이다. 몸이 닳도록 혀가 닳도록 외치고 애간장 타며 해온 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었다.
11.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다. 결혼의 비밀은 돈도 아니고 인물도 아닌 사랑이다. 그러니 늙어서 미(美)가 없어져도 사랑 때문에 산다.
12. 휴거된 영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영을 모시고 황금 천국으로 간다. 이는 마치 신부가 결혼하면 신랑 집으로 가듯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집, 황금천국으로 가는 격이다.
13. 예수님 때 혼인잔치 말씀은 신약 시대에서도 나름대로 이루었지만, 근본의 혼인잔치 역사는 특히 이 시대를 두고 말한 것이다.

고로 우리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

14. 혼인잔치 기간은 천 년이다. 천 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날로 하루지만, 우리로서는 당세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사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잔치를 했으면 이제는 평생 살듯이, 휴거된 자들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15.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휴거 된 것이다. 말씀을 빼면 안 된다. <말씀>과 <사랑>이다.
16.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뺏기니 뜻이 깨져버렸다. 말씀을 생명시켰다면 사랑을 100% 지켰다.
17. 다른 종교인들은 “말씀보다 사랑이 크다.” 하지만, 사랑 전에 말씀이다. 온전하고 위대한 말씀을 듣고 사랑하면, 그 사랑에는 이상이 없다.
18. 올해는 휴거 역사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밀어붙이고 왔다. 휴거 역사는 연속되고 있다. 계속 하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열렬히 해야 한다.
19. 지구가 생긴 이래,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을 최고로 이루었다.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을 통해 그 나뭇대로 이루고, 구약 때도 모세를 통해 그 나뭇대로 이루었지만, 이 시대에 마지막 역사를 이룬 것이다. 고로 이제는 떨어지지 말고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

20. 잘 모르는 자도 일단은 휴거 시켜놓고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따라와라. 그러면 깨닫게 된다.
21. 휴거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다. 고로 휴거만 이루면 된다. 그리고 휴거를 이루었다면 계속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
22. 신부는 신랑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신랑도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는 늘 사랑하며 사니 걱정할 것 없다. 신부들만 잘 하면 된다. 계속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일생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 역사가 끝나도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받고 사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23. 오늘은 휴거 날이면서 선생이 태어난 날이기도 하다. 곧 하나님 이 구원자를 보낸 날이다. 고로 제일 좋은 날이다.
24.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길이길이 해로하며 축복 속에 살아라.
25. 육신이 아픈 자들과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도 오늘을 중심해서 더욱 건강해지도록 역사하신다.